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일본 대지진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

□ 국회의 지식경제위원회는 14일 긴급전체회의를 소집해 일본 대지진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함.

- 철강산업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나 핫코일, 후판 등 수입 판재류 설비의 피해 정도에 따라 국내 철강제품 수급 차질이 우려됨.
- 메모리반도체는 낸드, 시스템반도체 관련 공장 일부가 가동 중단돼 수입 차질 가능성이 있으며, 디스플레이 및 휴대폰은 핵심부품과 소재의 재고 물량이 충분해 단기적으로 영향이 미미할 것임.
- 대일무역은 일본 동북지역과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일본 전체 수입액의 1.3% 수준에 불과해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 일본 부품 및 소재 기업의 생산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생산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음.
- 국제유가는 일본의 정제시설 중단에 따른 원유수입 감소, 세계경제 회복 둔화 우려, 사우디 반정부 시위 진정의 영향으로 일시적 하락이 전망됨.
- LNG 및 발전용 유연탄의 단기적 수급불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원전복구가 장기화될 경우 LNG 또는 화력 발전의 수요증가로 가격상승이 전망됨.

□ 일본 대지진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주시하면서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- 대지진으로 각 금융권이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급변하던 주식시장도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나 해외자산의 일본 본국 송환이 이루어지면서 엔/달러 환율 하락이 나타남.
-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중동불안, 유럽 재정위기 우려,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지진 여파가 확산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.
-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채권·주식·외환시장에 대하여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과 파급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일본 대지진과 관련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.

(일본 대지진 산업계 업종별 영향은 등, 연합뉴스 등, 3/14)